

게재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공짜 세미나를 즐기는 양축가들

잔 치에는 주인과 손님의 숫자가 적절하게 있어야 흥이나게 마련이다. 손님없는 잔치란 있을 수 없고 주인없는 잔치는 더욱 있을 수가 없다.

요즘 양계업계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를 보게되면 허무하다 못해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세미나를 잔치에 비유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열리는 세미나가 누가 누구를 위해 거창하게 개최되는지 구분이 안된다.

자사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지로 손님을 동원하려다 보니 부득이 제공하게 되는 기념품을 비롯하여 식사제공 그것도 모자라 관광 스케줄까지, 말그대

로 참석자를 공짜심리로 포만감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세미나를 잔치로 비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웬만한 세미나는 무료가 없어진지 오래이고 전문지식을 필요한 사양가에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유료 행사가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다. 물론 유료세미나라할지라도 세미나 자체를 통하여 흑자를 내겠다는 계산보다는 참석자로 하여금 돈을 냈다는 경각심을 주어 관심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과연 아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양계인들은 지금껏 받아들인 알기 위한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내 사업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세미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최측을 생각하여 선물이나 대접이 좋으면 참석하고 그렇지 못하면 참여하지 않거나 기껏 참석하고도 점심이나 먹으면 행하니 나가버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업체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단체나 학회가 양계인을 위해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생산자들은 보이지 않고 연관업체의 종사자들로 메워지는 모습은 썩 좋은 풍경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남들이 사양관리를 걱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일에 열을 올려야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도 물건 값이 너무 낮아 생업을 더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아직까지 자동차회사가 운전교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향후 경쟁이 치열해지면 혹 몰라도 아직은 자동차 생산업체나 소비자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각자 해야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산자들은 좀더 자신을 위해

업체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단체나 학회가 양계인을 위해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생산자들은 보이지 않고
연관업체의 종사자들로 메워지는 모습은
썩 좋은 풍경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남들이 사양관리를 걱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일에
열을 올려야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도 물건 값이 너무 낮아
생업을 더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여러 곳곳에서 연구되는 사례들을 직접 들어야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구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물공세로 치러지는 세미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료 세미나가 되도록 하여 발표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공짜 잔치는 어차피 전신효과로 끝나기 쉽다. 뭔가를 받았다는 부담감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요구가 곁들여져야 활기를 찾게 마련이다. 또한 발표내용도 윤택해져들어볼만한 세미나가 될 것이다.

돈주니가 사료값다주고 병아리 넣어주고, 인부시켜 사료주니 잘 먹고 커서 알낳으니 상인와서 계란가져가는데 구태여 새로운 사양관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냐고 으쓱대는 사람도 더러 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을 가만히 보자. 촘촘히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로 변화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다.

축산업도 초침의 이동만큼이나 바빠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패종시계는 정시와 30분에 타종을 했기 때문에 시간가는 경각심이나 주었지만 요즈음은 소리도 없이 가는 시계라서 더욱 변화에 대한 실감을 못할 수도 있다.

수입상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1g의 사료까지도 계산해야 하고 나아가 시설의 자동화는 물론 관리의 전산화로 체질개선을 해가는데 생산자들의 의식은 아직도 선물이나 바라는 세미나에만 관심이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김용화> 211